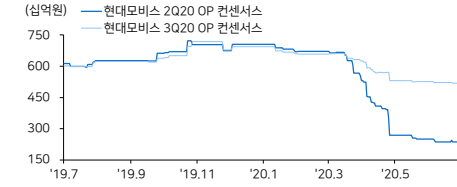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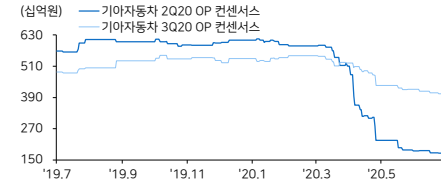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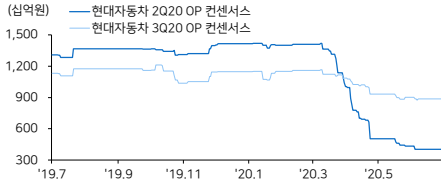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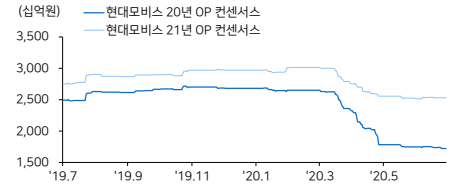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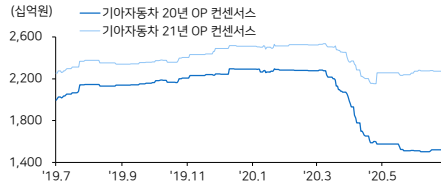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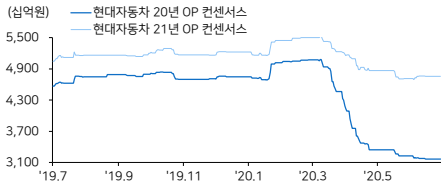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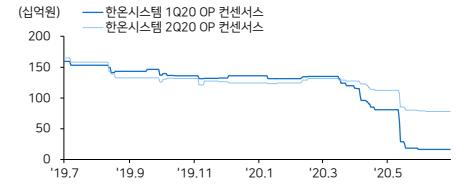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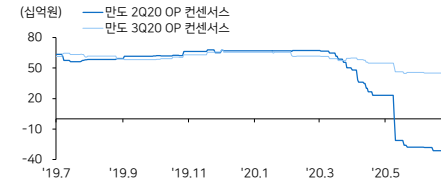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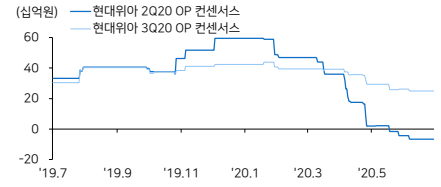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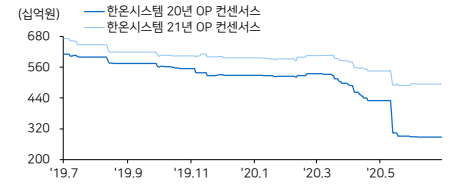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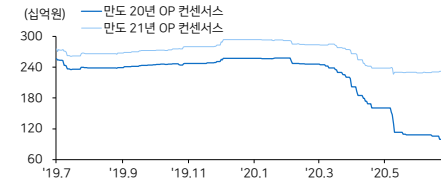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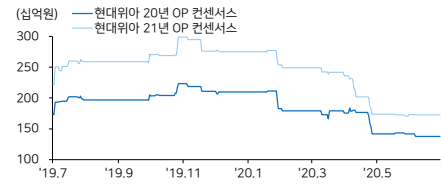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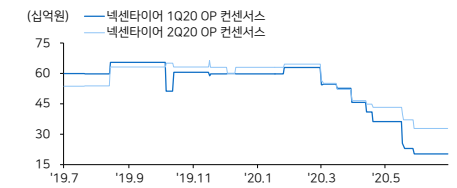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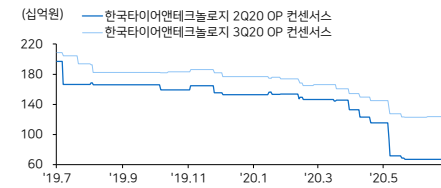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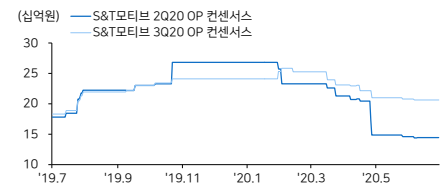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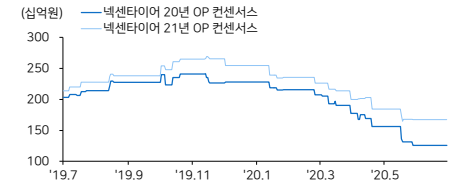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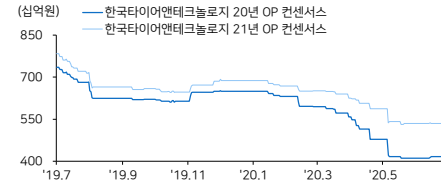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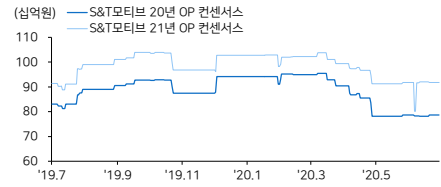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무서운 질주... 상반기 판매 51%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코로나19를 뚫고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업계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제네시스 판매량은 같은 기간 51.5%나 급증. <https://bit.ly/38lKXcE>

반등 성공한 인도, 신차 판매 11만대선 회복... 현대 기아차는 2만 8천여대 (M오투데이리)

지난달 인도 자동차 시장이 11만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임. 6월 인도 신차판매는 11만7,044대로 전년 동월대비 47.8% 감소. 그러나 3만6,576대가 판매되었던 5월과 비교시 8만대 급증한 것. <https://bit.ly/38o2GrB>

현대모비스, 미국 VC펀드에 250억원 출자 '미래차 전략' (매일경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벤처 펀드 출자를 통해 미래차 기술 확보 전략 구제화에 나선. 현대모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요소기술 전문 테크펀드인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에 총 2000만달러 출자한다고 밝힘. <https://bit.ly/2A9qwbX>

현대글로벌비스, 아우디·폴크스바겐 중국 수출 5년간 책임진다 (조선비즈)

현대글로벌비스가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세,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계열사들이 유럽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으로 운송할. 2024년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5182억원. <https://bit.ly/31HwYN4>

내수도 '아슬'... 현대차, 신차 9종 띄워 위기 돌파 (문화일보)

완성차업계가 하반기에는 국내 판매마저 악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짐. 지난 1일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이 축소됐기 때문.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만 신차 9종을 집중 투입해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 <https://bit.ly/2AocjSX>

현대·기아차 미국 장사, 다른 나라 업체들보단 그런대로 선방 (중앙일보)

현대자동차의 4~6월 미국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감소폭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eTrGlm>

'차박' 인기에...현대차, 4000만원대 캠핑카 '포레스트' 출시 (한겨레)

현대자동차가 4000만원대 캠핑카를 출시. 현대차는 소형 트럭 포테이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포레스트(Porest)'를 출시. 포레스트는 포터(Porter)와 휴식(Rest)를 합쳐 만든 이름으로, 편안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https://bit.ly/2NRB6K>

넥센타이어,美 딜러 프로모션 확대...인센티브 UP (더그투)

넥센타이어가 미국 딜러의 프로모션을 확대.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 넥센타이어는 올해 코로나19로 타이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타이어 교체 수요 감소로 부진한 실적 기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 <https://bit.ly/2C45Pta>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